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8

항상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야마에 있습니다. 바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을 대신하여 이번에 출판사의 허가로 지진 재해를 주제로 한 전단지 원고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팸플릿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2일 사토 아키라((佐藤 彰)

어둠에 반짝이는 빛

후쿠시마 하마도오리(浜通り)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5킬로 범위내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재해 때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전사고로 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예전에 이 교회로 모이던 지역 분들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격동의 3개월 동안 무엇을 체험하며 느끼며 보았을까요?

후쿠시마 제 1 성서 침례교회 목사 사토 아키라(佐藤 彰)

이것은 악몽일까요?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그 날은 기이하게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지진과 해일 그리고 거기에다 또 다시 원전사고로 평화로웠던 일상생활이 돌변했습니다.

집과 지역 교회마저 잃고 도시에서 생활하던 모든 사람이 갓난아기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고향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위대의 군용트럭에 태워져서 12시간동안이나 흔들리는 트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의자에 필사적으로 달라 붙어있었습니다. 추위로 몸을 떨며 어두운 후쿠시마를 지나서 겨우 도착한 곳이 담요도 식료도 없는 대피소였습니다.

설마 현대 선진국인 일본에서 이와 같은 논스톱의 서바이벌 도피행에 말려들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들은 평소 교회에 다니던 사람과 미신자인 마을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목적지가 없는 유랑의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여행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이름도 「후쿠시마 제 1」교회

우리 교회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기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땅에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당시 그 선교사가 소속된 미국 침례 교회의 전통대로 교회명은 “후쿠시마 제 1” 성서 침례교회로 명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이름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만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 우리들은 자택이나 교회가 있는 고향에 자유로운 출입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저 그리운 산과 들에 서서 추억이 담긴 고향을 응시하며 교회의 문이 열리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원자력 발전소 가까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혹한 상황하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작업원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그런데 그 당시 갑자기 집을 잃고 갈아입을 옷도 저금통장도 못 가지고 나온 채 여행길로 쫓겨난 우리들은 언제부터인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라든가 “입을 것이 지급되어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받습니다. 따뜻한 인정을 느낄 때마다 눈물샘이 터져 몇 번이고 감사하는 마음 떨리는 눈물을 흘리곤했습니다. 당초에는 막잠이라도 이불 위에 놓는 것이 고마웠고 5일만에 따뜻한 것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 주셨습시다만 도움받는 일이 하도 많아서 어쩌면 우리들은 지진재해를 당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보다 많은 것을 얻은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싸안으심과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괴로운 날도 많았습시다만 셀 수도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시다.

달리보면 피난 생활은 4 개월이 지나 지진 재해로 인한 가혹한 현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무거운 중압감이 덮쳐와서 마치 풀숨으로 목이 조이는 것 같은 숨가쁨을 느끼곤합니다. 직장은 나날이 도산되어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피로는 벌써 한계를 넘었습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식도 몸을 의지하러 간 친척과의 관계도 어딘가 모르게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전력질주 같은 것이예요”라고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만 저 대지진 재해 속에서 전력으로 질주하지 않고서는 아마도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요. 그렇다고해도 언제까지나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겠지요. 이상태가 계속된다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장거리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페이스 배분과 기어체인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잃어버린 것을 쫓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음은 공허하게 됩니다. "협장격차(缺状格差)"란 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진재해 초기시점에서는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드디어 부흥경기로 회복되고 생활이나 마음과 몸 또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과 지역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안 좋은 상태로만 빠져들어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크게 두 갈래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위가 점점 벌어지는 듯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버릴것 같습니다. 부흥이 착착 진행되는 다른 피해지역을 걷어내면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흔들리지 맙시다.

*참고 : 협장격차(缺状格差)란 두 산업부분에서의 생산물 가격차가 현저히 벌어진 상태를 의미함

작년에 남미 칠레에서 지하 700 미터에 사람들이 갇혀버린 낙반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온세계가 숨 죽이며 응시하는 중에 전원이 구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하 700 미터에서는 나이 많으신 오마루씨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희망을 버려서는 안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힘을 합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50 년분 아니 일생 분을 울고 아픔을 딛고 일어섭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구세주 예수가 이토록 고뇌하는 우리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 인간이 사는 세계에 뛰어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세주는 "슬퍼하는 사람으로 아픔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의 구세주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어느 날 피난소에서 다른 피난소로 물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저도 모르게 그 피난소에서 뛰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빠져가면서 다른 빠져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 인간을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들 세계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위해 죄없는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구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는 크리스마스날 중동에 있는 한 가축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목수로 일하며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최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차있는 어둠의 세계에 뛰어들어 스스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 이분을 지금도 고뇌하고 있는 우리들의 구세주로서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지진재해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들을 부디 도와 주옵소서. 언젠가 이 모든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부디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추어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주소서.. 아멘. (마음으로부터)”

사토·아키라(佐藤 彰)

1957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 1 성서 침례교회목사.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당하여 교회는 일단 폐쇄.

교회원과 지역 사람들과 함께 유랑의 여행을 떠남.
교회 홈페이지는 해외에서도 볼 수 있다.

저서로는 “유랑의 교회”

“괴로움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

“순풍 좋고 역경 또한 좋아요”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등이 있다.

지진 재해 당시 바로 기록하신 “유랑의 교회” (생명의 말씀사)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 <f1church.com>

6월 18일 오사카에서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9

오늘 아침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일요일 오전 8시 15분 미토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뉴스입니다. 이름은 “마히루”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존재가 대낮과 같이 가정을 비추기를 바라며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라는 구절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지진 재해의 그림자로 덮힌 이 세계와 그 속을 헤치며 유랑하는 우리들을 비추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낱알이 몇 번이고 좌절이 엄습해오는 중에 굿 뉴스입니다.

지금은 유령 타운이 되버린 애수의 고향인 후쿠시마 남단에 위치한 라면집이 개점했다는 뉴스도 들렸습니다. 고향을 부흥시키려고 그 누구보다 먼저 문을 연 것이겠지요. 손 라면집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움츠러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알리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평범하게 살고 소문이 날 정도로 번창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겁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차례 차례 고향으로 귀환하고 여기 저기 햄버거가게등 이 가게 저 가게가 삼시간에 개점하여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 영원히 고향을 잃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고개들어 “이것 봐 저것 봐”라고 말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도시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요?

사람들로 북적이며 전기 불이 켜지고 차가 왕래하고 사람들의 담소에서 웃음 소리가 메아리치는 이런 잘 짜여진 스토리를 마음에 그리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읍시다. 길조의 조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귀가를 허락할 때 갑자기 방호 복 없이도 귀가 가능하게 된 뉴스를 들으며 우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기중 방사선양의 수치가 날마다 내려가고 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토막 토막 끊겨 있었던 국도도 복구되어 작업원의 차는 왕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리는 뉴스 대부분이 우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해도 1 퍼센트의 가능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9 퍼센트인 어둠에 하나의 등불을 켜 봅시다. 되돌아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보니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도 로마제국의 압정아래에서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구세주의 탄생은 그 당시의 깊은 어둠을 비추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아기의 탄생 바로 그 존재 자체가 큰 위로이며 미래로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렵곤했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로 인하여 국내에는 여러가지 문제와 균열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로마 쪽에 붙으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균열과 경제의 피폐도 심각했겠지요.

사람들에게 만연하는 좌절감과 무기력 그리고 절망감으로 여기 저기서 불미스러운 감정의 엇갈림이 생기고 이 모두가 만약 로마의 압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괴로움은 없었을거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했음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압박을 받으면 받을 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기진하여 빠듯한 한계에 달했을 겁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정세가 서로 얽혀있는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진 재해의 와중에서 태어나

아무걱정없이 해맑은 웃음으로 오늘 아침도 주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어둠을 비추시는 눈부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합시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는 세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6 월 25 일—7 월 5 일

도야마에서 사토 아키라((佐藤 彰)